

제423회 국회 (임시회)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1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
 - 위원장(김기현) 인사 2
2. 간사 선임의 건 3
 - 간사(정일영·이만희) 인사 3

(11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윤후덕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으로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및 기존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5선 의원이신 김기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후덕** 혹시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왜 저는 추천을 안 하세요? 제가 4선이어서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기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현 위원장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 주셨으니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사회권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장님, 위원장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장직무대행, 김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김기현) 인사

(11시33분)

○**위원장 김기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APEC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또 위원장으로 선출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한 표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하니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빠뜨렸다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마는 한결같이 우리가 잘되기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한 표, 선거운동 안 한 것 이상으로 잘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윤후덕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형님이신 것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선출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된 후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지난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21개국에 이르는 정상급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경주에 모여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공적인 APEC 개최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

탁드리고, 우리 국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의 전범을 만들 수 있도록 저부터 먼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첫 회의로 위원님들 상호 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는 하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36분)

○위원장 김기현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협의해 나갈 간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을 각각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일영 위원님을 교섭단체 간사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 위원님을 교섭단체 간사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위원님들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 순서는 방금 선임되신 간사님들 먼저 하시고 여야 위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간사(정일영·이만희) 인사

(11시37분)

○위원장 김기현 먼저 존경하는 정일영 간사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기현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김기현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 이만희 간사님도 축하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하여튼 특별한 이견 없이 간사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를 송도국제도시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현재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APEC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

럽게 생각을 합니다.

APEC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해 가지고 세계 GDP의 한 60%, 교역량의 한 48%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미국이라든지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외교·무역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만큼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된 곳도 있지만 올가을에 여러 관련된 회의도 많고 10월 말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오니까 빈틈없이 국회에서 잘 지원하고 성공적인 APEC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만희 간사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그러면 이만희 간사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정일영 민주당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의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게 된 경북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위원입니다.

사실 국제관계가 요동치고 있고 특히 동북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역학구도의 큰 변화도 함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고 이 행사를 차질 없이 잘 수행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아마 모든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야당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잘 모시고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우리 국회 쪽에서 철저히 지원하고 또 점검도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우선 김기현 위원장님, 같은 울산인데 축하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만희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도 간사 선임된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잘 모시고 APEC특위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 이후에 정치·경제·외교·안보 전방위적으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주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일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APEC 정상회의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 걱정도 덜고 APEC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위가 뒤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기를 바라고요.

행사를 화려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물량 공세를 한다고 해서 APEC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이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서는 어떤 지원책도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 모두 철저한 준비뿐 아니라 군사독재와 국정농단을 단죄하고 진정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세워 낸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과 역사가 있었기에 두 올림픽 모두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서 당당히 성공할 수 있었으며 우리가 내세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 또한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

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역시 특별위원회가 그 뜻을 함께하는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은 지금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넘어 소멸 위기까지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APEC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준비를 통해 대회 주 장소인 경주는 물론 부울경 전 지역이 공생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갈 방안까지 모색했으면 합니다.

APEC이 지역과 국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위원입니다.

먼저 APEC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김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정일영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양 간사님 잘 모시면서 우리 특위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대한민국에 큰 행사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APEC을 넘어서 세계 모든 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과정인데 APEC 공간을 통해서 하나 되고 국민들이 통합되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특위 위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 윤후덕 위원입니다.

저는 외통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김기현 위원님하고 홍기원 위원님하고 해서 개최 도시인 경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했는데, 준비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한 10개 정도 사업들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특위에서 빨리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보니까 경주가 제일 클 때는 27만인데 요즘은 24만으로 줄었대요, 인구가.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랬지요. 이번 큰 행사를 통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주 그리고 또 경북, 더 커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큰 APEC이 됐으면 하는 기원 그리고 또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다음으로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들을 모시고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여러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말을 짧게 끊겠습니다. 다만 정치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APEC을 계기로 저희가 정

과를 떠나서 그리고 진영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다음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반갑습니다.

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할 이병진입니다.

(웃음소리)

한번 웃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은 너무나 진중하셔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면식이 있는 사람인데 웃지도 않으시네. 섭섭합니다.

그리고 정일영 위원님 그리고 김기현 간사님 국회 정문 앞에서 우연히 조우해서 악수한 번 나눴는데, 지난주 또 조우할 기회가 있는데 눈을 피하시더군요. 참 아쉬웠습니다. 국회 뜰 앞에서 말이지요. 아마 느끼셨을 텐데 하얀 와이셔츠 입고 지나가셨습니다.

하여튼 ‘정치는 중오 없는 싸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외교와 관계되는,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특별히 설치됐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조금 있다면 중국에 오래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가서 시진핑 주석 꼭 올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주 컨센서스가 탄생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다음으로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이 대회를, APEC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을 쫓아다니던 이달희 위원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은 의성부터 영덕까지 산불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도 하셨고 이재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정말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산업벨트를 비롯해서 우리 경주는 또 APEC을 유치해서 대한민국 문화보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야당의 쟁쟁하신 위원님들 뵈니까 이 두 가지 위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김기현 위원장님, 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준비해 나간다면 APEC은 우리 국가를 88 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우뚝 올려놓을 수 있는 특히 문화보국이, BTS가 여기서 나왔구나. 열여섯 살 화랑에서부터 이 BTS가 나왔구나 이런 전통을 보여 줄 수 있는 정말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시고 심부름 잘하겠습니다. APEC 준비 성공할 수 있도록 경제부지사 출신으로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다음으로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김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이만희 간사님, 저희 정일영 간사님 모시고 APEC특위에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경주가 유치는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경주의 APEC이 아니라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APEC 특위가 그 역할을 하는 데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잔치가 벌어지면 손님이 많이 와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아태평양 연안의 21개국 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21개국의 관계 장관들뿐만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들까지, 최대한의 인원이 참여하고 최대한의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APEC 특위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또한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 이하 우리 특위 위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

○이인선 위원 저는 대구 수성구를 국회의원 이인선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할 때 제가 인사를 나눴습니다마는 국회를 시작하면서 정일영 간사님하고는 계속 산자위, 지금 기획재정부 또 이 특위까지 아주 가까운 짝지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장님이나 양쪽 간사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가 되는 모습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잘하기를 바라구요. 특히나 기재위의 예결소위원장이십니다. 앞으로 필요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아마 간사님이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올해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 활동이 우리가 특별하게 많이 뛰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여기 오는 여성 기업인들의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레벨업시키는 일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다음으로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김기현 위원장님과 이만희 간사님 또 정일영 간사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여러 상임위를 해 보면 사실 토론보다는 토의를 많이 하는 상임위가 좋은데 이 APEC특위는 토의를 많이 하는 상임위가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APEC 관련된 예산 등에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특위가 생긴만큼 이런 부분들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유익하고 또 유쾌한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다음으로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 위원입니다. 서울 마포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지원특위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장님, 정일영 간사님 그리고 이만희 간사님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일정이 있는 거니까 길어야 한 6개월, 마무리까지 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활동인데요. 오랜만에 각자의 당적이 아닌 국적을 놓고 어떻게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유의미하고 건설적인 상임위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큼니다. 저도 제 역할을 주저하지 않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다음으로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인철입니다.

먼저 김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게 돼서 많이 영광스럽습니다.

제 친정이 기재부여서 APEC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낯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국에 주로 넥타이 풀고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넥타이를 매고 앉으니깐 상당히 어색하기도 한데요. 하여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경제·외교도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이 행사가 잘 이루어져서 경주가 과거의 관광도시로서 다시 한번 부흥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조국혁신당 문체위 소속 김재원 위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경제위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통상 압력이 시작된 상황에서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저는 문체위 위원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동차, 반도체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지금 국가경제 기여도 3위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전체 예산은 국가예산의 1.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 콘텐츠는 관세도 없고 그리고 달러로 대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증액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다시 K의 브랜드로 표현이 되는 그런 K-문화를 어떻게 더 많이 알릴 것이고 그리고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문화적인 역량으로 더 많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또 기회를 만들기를, 그러한 마음에서 이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문화적 소통과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열심히 하고 국위를 더 선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마지막으로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선임되신 것을 축하도 드리고요. 또 함께 특위활동 하

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순서에 가나다 순서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나다 역순도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나 마지막이라서……

(웃음소리)

저는 2005년 APEC, 해운대 동백섬에 열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의 에쿠스가 공식 의전 차량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차의 브랜드 파워가 더 커졌고 지금은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서 독일 메이커에 전혀 뒤지지 않는 또 일본 메이커에 뒤지지 않는 그렇게 메이커로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APEC도 그런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가운데 국회가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동백섬에 그때 정상회의 회담장으로 만들어진 누리마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주, 지금도 방문을 한 번씩 합니다마는 정말 좋은 관광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대회가 정말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위상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좋은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창원시장을 할 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직접 개최하고 또 집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정말 세계대회나 또 겨울철·여름철 할 것 없이 수많은 선수들이 창원에 와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도 개최되고, 그것을 보면서 이번에 경주 대회가 정말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국회에서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돕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이상으로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제일 오래 기다리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역순으로 하자 그러시니까 제 생각하고 통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간사 위원님들, 다음번 우리 회의는 거꾸로, 가나다순의 거꾸로 질의 순서를 앞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잘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좀 불이익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허씨, 홍씨 이렇게 가면.

○허성무 위원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오늘 선임되신 간사 위원님들 포함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들을 소개할 텐데요.

김사우 전문위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외교부로부터 파견되어 온 임시홍 국장입니다.

다음으로 김형진 외통위원회 행정실장과 입법조사관들 그리고 주무관 직원 여러분들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전문위원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포함해서 모두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내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향후 위원회 회의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는 위

원장이 두 분 간사님과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다음 주 초쯤 해서 빨리, 별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빨리빨리 저희 회의를 진행해서 안건들을 챙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들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기현 김재원 김태선 김형동 유영하 윤후덕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인선
임미애 장경태 정일영 조인철 조정훈 허성무 홍기원

○청가 위원(1인)

이연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우